



시도 염전

“다 진짜야
내 삶은”

“내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는 처음 보네.”
10월, 소금 농사의 끝 무렵이지만 오늘은 햇살이 좋다.
시도 염전의 강성식(77)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소금물을 결정지에 올렸다.
햇살에 뭇이 데워지면, 소금꽃이 활짝 피어날 테다.

“난 내 모든 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살아. 다 진짜야, 내 삶은.”
할아버지는 40여 년 염부로 살아온 자신이 자랑스럽다.
노을에 불그스름해진 얼굴, 행복한 미소가 흐른다.

소금밭에 하늘이 잠긴다. 그 위로 늙은 염부의 그림자가 일렁인다.
평생 태양을 등지고 한길을 걸어온 그의 뒷모습은, 순수하고 견고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순백의 결정체처럼.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굿모닝인천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10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장훈(브랜드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 편집장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CONTENTS

- 04 인천 미소 그 섬에 가고 싶다 外
- 06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 강화도 남문한옥 ‘대명헌’ - 소금빛 서점
- 10 민선 7기 100일 주요 성과와 행보 / 시민 인터뷰
- 20 소통의 시대 공유 공간
- 22 글로벌 인천 의료관광 도시
- 28 비전 인천 MICE 인재육성
- 32 인천 VS 세계 도시 @ 인천 차이나타운 VS 뉴욕 차이나타운
- 36 얼굴 좀, 봅시다 “방금 채집한 그 소리, 이미 역사입니다” - 안병진
- 38 문화 캘린더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 이건 음악회 外
- 40 즐거운 인천 시민 축제
- 42 시정 뉴스 ‘전국 최초’ 완전 무상교복·무상급식 시행 外
- 48 의정 뉴스 제249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外
- 50 컬러링 인천 부평풍물대축제
- 52 Info Box 저층주거지 재생 아이디어 공모 外
- 57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익숙함이 되다 - 샘표
- 58 인천의 아침 인천을 사랑한 바다
- 59 인천 사는 나무 강화도 마니산 소사나무



06



10



20



22



32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굿모닝인천’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미소

인천시 지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을 입력하세요.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그 섬에 가고 싶다

독자 김윤정 서울 금천구



“올해도 덕적도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속도로 통게이트 수납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워낙 여직원
원이 많아서 서로 시간만 나면 여기저기 놀러 다닙니다. 그중 인천 섬은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바람 쐬러 가는 기분이 확실히 들어 모두가 좋아
합니다. 무의도, 팔미도, 굴업도, 대청도, 백령도… 여러 이름이 거론되던
중 한 동료가 또 덕적도를 호명했습니다.

덕적도는 3년 전, 그곳의 하나뿐인 초등학교인 덕적초등학교를 졸업한 동
료가 강력하게 추천해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첫해는 덕적도 민박에 머물
며 바다낚시를, 이듬해에는 밤지름해변에서 별을 헤아리며 캠핑을, 그리
고 지난해에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자며 쓰레기를 치우는 ‘클린 백패
킹’을 했습니다. 비조봉에 오르며 마뎃자루 서너 개에 쓰레기를 담아 내려
왔지요.

‘굿모닝인천’도 ‘덕적도 덕후’ 동료가 어느 날 제게 건넨 게 인연이 돼 즐겨
보게 됐습니다. 잡지를 보거나 PC에서 봤는데, 최근에는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 돼 매우 편리합니다.

9월호에서는 초록한의원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 오래도록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고, 아버지 뒤를 이어 같은 장
소에 한의원 문을 연 아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몽클했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골골거리는 제 여동생은 초록한의원 한약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는군요. “그래 동생아, 언니가 올가을에 약 한 첩 쏜다.”

초록한의원에 가게 되면, 간 김에 ‘인스로드 탐방’도 해보고 싶네요. 회사
가 그렇게 예쁘면 출근길이 아니 즐거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굿모닝인천’이 그동안 인천의 보물섬을 꾸준히 소개해 줬는
데요. 앞으로도 인천 섬의 다양한 매력을 알려주고, 그 섬의 음식을 소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에도, 그 섬에 가니까요.

‘인천 섬아, 곧 보자. 또 반겨줘!’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300만 ‘시민 시장’

300만 인천시민이 스스로 ‘시민 시장’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 누구나 인천을 아끼고 사랑할 것입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시민 중심의 인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평화롭고 행복한, 살맛나는
‘인천특별시대’를 기대합니다.

- 이재기 남동구 용천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었으면

요즘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큼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려주세요. 지금으로써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응원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 박태규 연수구 한나루로

보고 싶은 얼굴들

‘굿모닝인천’을 보며 추억 여행을 떠난 듯 따듯한 감성을 만끽해 봅니다.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도심에
가면, 옛 기억이 떠오르겠지요. 누군가와 함께 건던 흥예문 길, 엄마 손 잡고 장 보던 평화자유시장, 책 냄새
가득한 배다리 헌책방골목… 책 속의 사진을 보며 인천만의 고풍스러운 맛을 느낍니다. 화려한 도시도
좋지만 늘 함께 살아야 하는, 빗바랜 이야기에 주목하는 ‘굿모닝인천’. 덕분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 정해중 중구 인종로

옛 동네를 기억하다

‘굿모닝인천’을 펴는 순간, 오랫동안 못 본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
로 떠나고, 원도심은 오래된 작은 마을로 변해버렸지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동인천 주변 거리를 거닐며, 가을을 기다려봅니다.

- 장순자 중구 도원로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굿모닝인천’ 1년 모으면 ‘올웨이즈 인천!’

‘굿모닝인천’을 올 한 해 매달 모아 차곡차곡 쌓으면,
인천시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이 완성됩니다.
‘굿모닝인천’ 2018년 컬렉터에 도전해 보세요!

그 여자의 그릇 가게

그 남자의 서점



RETRO? NEWTRO!



100年

백 년 고택에 움튼,
백 년 서점의 꿈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강화도 남문안길에는 100년 된 한옥 '대명헌'이 있다. 최근 젊은 부부가 그 집 한편에 작은 서점을 냈다. 오래된 집처럼 긴 시간 책방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꿈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백 두 산 잣 나 무 로
지 은 집

느리게 걷고 깊이 파고들수록 아름답다. 수더분한 땅 빛,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100년이 훌쩍 넘은 고택, 마을을 감싸 도는 좁은 길에선 시간조차 가던 길을 멈춘다.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고 긴긴 이야기를 간직해 온 땅. 강화도 남문 안길을 걷다가 고풍스러운 가옥 앞에서 발걸음이 멎는다. 강화도 천석꾼 황국현의 집이었던 '대명헌'이다. 강화읍에는 1900년대 초에 지은 근대 한옥들이 아직 건강한 숨결을 내뿜고 있다. 1928년에 지은 이 집은, 부잣집답게 당시 할 수 있는 호사를 다 누렸다. 백두산에서 잣나무를 베어와 대들보와 서까래를 올리고, 창틀과 문틀, 마루, 문간을 하나하나 다 짜 맞췄다. 산림을 벌채하는 권한이 일본에 있을 때였다. 머나먼 북쪽 땅의 나무를 베어 인천항을 거쳐 강화도로 들여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그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행히 집은 새 주인 잘 만나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집도 한때는 높다란 담장 안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갔다. "40여 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온 집안에 넝쿨이 둘러쳐졌지요." 도예가 최성숙 씨는 7년 전, 비어 있던 이 집을 발견했다. 그는 폐허 속에서도 빛나는 옛것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다. "햇살이 기와지붕을 뒤덮고 있었어요. 어찌나 견고하고 아름다운지 순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래고 군데군데 기와가 깨져 나갔지만 그 자체로 멋스러웠다. 그 지붕이 뭐라고, 40여 년 동안 비어 있던 100여 년 된 집을 덜컥 샀다.

“외국은 건물에 서점이 들어서면,
그 건물주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대요.”
백 년 서점을 향한 부부의 꿈이, 백 년 고택에서 무르익고 있다.



해질녘의 '대명헌'.
한 지붕 아래 '그 여자의 그릇 가게'와
'그 남자의 서점'을 품고 있다.

시간을 거스르는, 한국의 아름다움

지붕만 온전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니 안방과 사랑방 지붕이 무너져 흠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 정도야 손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용기를 냈다. 흠은 걷어내고 원래 있던 기와를 가져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쌓아올렸다. 회복하는 데만 4년이 걸렸다. 이후로도 계속 쓸고 닦아 6년이 지난 이제야 겨우 모습을 갖췄다.

“10년은 잡고 있어요. 처음엔 허물어져 가는 집이 안쓰러워 살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공간에 새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의 페이지를 하나씩 찾는다는 생각으로 집을 매만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누가 봐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아름다움’이라고 자신 있게 내보이고 싶다.

삼 년 전, 강화도 남문한옥에서 사랑을 싹 틔운 연인.
오늘 그 안에서, ‘그 남자의 서점’과 ‘그 여자의 그릇 가게’를 열고
둘만의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다.

겨울 한 가운데, 연인을 품어주다

2015년 달력이 한 장 남은 어느 날, 한 젊은 남녀가 이 집을 찾았다. 서울 아가씨 김혜지(32) 씨는 강화도 청년 박서연(34) 씨를 만나기 위해, 처음 강화 땅을 밟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버스를 타고 두 시간이나 달려왔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한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마중을 나왔다. 처음 하는 데이트였다.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그냥 걷자고 했다. 어색한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남문을 보는 순간, 뽕뽕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이렇게 고즈넉한 풍경이 도시 한 가운데 펼쳐질지 몰랐어요.”

둘은 남문안길을 걷다 한 오래된 가옥의 문을 두드렸다. 이 집을 세운 황 씨 집안은 방직공장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배재학당을 짓고 독립군을 지원했다. 1947년에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기도 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이 집 구경을 시켜주고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인심 좋게 안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감을 따서 건네주었다. 쓰윽 문질러 베어 무니 달콤함이 입안에 가득 찼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되는 때 결혼을 했다. 낭만적인 첫 만남을 이뤄준 이 집에서 기념 촬영을 해 추억의 책갈피에 가지런히 꽂아두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자의 서점’과 ‘그 여자의 그릇 가게’를 열고 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동네 사람들에게 열려 있던,
황 부잣집 마당의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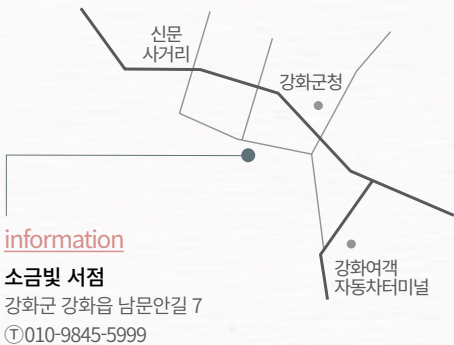
비바람을 견뎌온 세월만 백여 년이다.
오래된 집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집주인 황성숙 씨와 김혜지, 박서연 부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부부가 100년 고택에 서점 문을 연 지, 이제 두 달이 됐다. 세상을 하얗게 밝히고 싶어 이름을 ‘소금빛’으로 지었다. 책 파는 길로는 돈이 안 되니 먹고 살기 위해 그릇 가게도 함께 냈다. 벌써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 아이는 책을 읽고, 엄마는 그릇을 고르고, 아빠는 잠깐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붙인다. 조금은 게을러도 되는 시간이다. 모처럼 마음이 여유롭다.

“사람들이 책장을 넘기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남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책방에서 책을 고르던 추억을 잊지 못해 서점을 열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합일초등학교 앞에서 ‘가망불망’이라는 서점을 꾸렸다. 그 이름은 ‘잊어도 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뜻한다. 살다 보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불안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책만큼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있을까.

“처음 강화도로 와 서점을 열었을 때, 100년 넘게 지키는 게 꿈이었어요. 이 집으로 와 자연스럽게 100년 서점이 되었으니, 더 긴 시간을 이어가야죠.” 고택에 스민 종이 향이 그윽하다.



그 남자의 서점



그 여자의 그릇 가게



민선 7기 첫걸음 인천 미래의 밑거름

2018년 7월 1일, 인천시 민선 7기가 ‘인천특별시대’를 향해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의 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민선 7기 출범 후 부지런히 걸어 온 시간을 돌아보며, 인천의 내일을 그려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시 대변인실

“오늘은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 시장에 취임하는 날입니다.” 2018년 7월 1일, 인천시 민선 7기의 시작. 박남춘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명제를 세상을 향해 던졌다.

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나부터 낮추고, 새로워지겠다. 시장의 ‘특권’은 내려놓고 ‘권력’은 시민께 돌려드리겠다.” 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부터 챙기고, 보여주기식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시민의 뜻대로 시대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시민 우선의 확고한 시정 철학을 밝혔다.

그로부터 100일,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특별시대’. 그 놀라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원도심·협치·평화·일자리를 중심으로 인천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는 이달 8일에는 시청에서 시민 토론회 ‘500인 시민 시장에게 듣는다’를 연다. 토론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로’다. 시민들의 손으로 지은 인천시 슬로건도 이날 정해진다. 이는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인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펴겠다는 시의 굳은 의지다.

시작이 좋다. 인천에 산다는 것, 인천 사람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시대.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날이 곧 오리라, 우리는 믿는다.

현장에서 시민과 눈빛을 나누고 마음으로 듣는, 시민 중심의 행정.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특별시대’.
그 아름다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2018년 인천시청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빗속을 뚫고 내디딘,
민선 7기의 담대한 첫걸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태풍 ‘쁘라삐룬’의 복상으로
7월 2일로 예정된 취임식은 취소했다.



‘인천사랑 실천 걷기대회’에서 시민과 함께,
한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보폭을 맞춰 걷는
박남춘 시장.

임기 첫날, 박남춘 시장은 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출근해
태풍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확장으로, 인천은 ‘세계 마이스
도시’를 향한 꿈에 성큼 다가섰다.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인천 선수들과 함께,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인천!’을 외치며.

07월

- 01일 -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 06일 -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연석회의 개최
- 09일 - UN 사무총장특별대표 면담
- 10일 - 중국 충칭시 류구이핑 부시장 방인
- 11일 - 2018 인천 병역지정업체 채용한마당 개최
- 12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인천지역회의 개최
인천 광역·기초 여성의원 간담회 개최
- 13일 - 제35회 인천복지포럼 개최
- 14일 - 인천사랑 실천 걷기대회 개최
- 18일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준공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 19일 -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 거버넌스 구축 협약
2018년 인천 우수 상품박람회 개최
인천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청와대 정무수석 지역 현안 청취 면담
- 20일 - 인천 중소기업중앙회 및 인천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면담
- 23일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지사 접견
- 25일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플랫폼 관련 업무협약
옴부즈맨과 민생 규제 현장 토론
- 26일 - 원도심 혁신물류센터 투자유치 MOU 체결
- 31일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현, 인치너카드)’ 발행

08월

- 09일 -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상생 협력 공동 추진 행사 개최
- 10일 - 민선 7기 자치단체장 소통·협치 워크숍 개최
- 14일 - 벤처펀드 운영,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 16일 -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선전부장 방인
- 23일 - 장애인 단체장 오찬 간담회 개최
- 27일 - 인천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삼산동 특고압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면담
- 28일 - 인천여성 취업 창업 창업 종합박람회 개최
- 29일 - 안전 보안관 발대

중국과의 정책·경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2018 인차이나포럼’.

‘UNCITRAL 2018 국제무역법 포럼’.
전 세계 국제상거래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진지하고, 따뜻하며, 열정 가득하다.

민선 7기 출범 후 부지런히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인천의 밝은 내일을 그려본다.

09월

- 01일 - INK(Incheon K-pop) 콘서트 2018 개최
- 04일 -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신임 소장 예방
인천의 전쟁과 세계 평화 포럼 개최 협약
- 05일 - 안정적 냉·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원공급 협약 체결
- 06일 -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최
항공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개소
- 07일 - 2018 인차이나포럼 개막
쉐보레 판매 증대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 10일 - UNCITRAL 2018 국제무역법 포럼 개최
인천통일+센터 개소
도전 K-스타트업 2018 출정
메르스 대응 관련 긴급회의 개최
- 11일 - 인도 콜카타 한국 명예총영사 및 기업 대표단 방문
인천시청 도로환경미화원 간담회 개최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13일 - 2018 바이오 인천 포럼(BigC) 개최
프랑스 르아브르시 대표단 방인
인천여성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14일 -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개막
제1기 디딤돌 서포터즈단 발대
- 17일 - 민주시민교육 업무협약
- 18일 - 교육·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
- 19일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강화도에서 열린
'강화 고려문화축전'에서,
참가자의 깃대를 거들며
힘이 되어주는 박남춘 시장.



인천시민의 새로운 자부심이 된다.
시청 앞 '미래광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한다.



지치고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펼 것이다.



제7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로 열린
'SK와이번스'의 경기에서,
시타를 한 박남춘 시장과 시구를 한
다자녀 가족의 즐거운 한때.

2018년 인천시청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평화, 새로운 미래'에 인천이 발맞춘다.
통일 관련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인천통일+센터'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 개소했다.



도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뜻을 모았다.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는
교통·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시장(市長), 시장(市場)에 가다'.
추석을 앞두고 박남춘 시장이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함께, 인천

- 주민 참여 예산 대폭 확대
- 광역시 최초 '시민공문화위원회' 설치
- 찾아가는 실·국 업무회의 운영
- 시장실 개방, 열린 시장실 운영
-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 추진
- 찾아가는 시청 운영
- 상수도 검침 구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행복, 인천

- 전국 최초 중·고교 무상교복 전면 시행
- 송도·청라국제도시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 광역 자치단체 최초 '시민안전보험제' 시행
- 제3연륙교 조기 건설
-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유치)
-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 유치
-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 개소
- 인천형 전자화폐 도입

비전, 인천

-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 설치
- 균형발전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5개소)
- 송도국제도시, 전국 최초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준공
-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 운영

평화, 인천

- 인천통일+센터 개소
- 서해 NLL해역을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시민이 행복한 내일을 기대합니다

민선 7기, '새로운 인천'의 서막이 오른 지 3개월 남짓 지났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현재 인천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선 7기 이후 변화에 대한 소감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들어봤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한 포토저널리스트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늘 똑같은 잣대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말고, 아이들이 각자의 꿈과 재능을 맘껏 펼치고, 서로 다른 그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 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로써 인천은 '0세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동수초등학교 학부모와 아이들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정책과 문화시설이 필요해요”

인천시 청소년 웹진 'MOO' 청소년 기자들



학생들의 선택권을 열어준다는 취지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면 교과과정을 보충하기 위해 오히려 방과 후에 사교육을 더 찾게 되는 폐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때문일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바른 교육정책이 일관적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또 조별 과제를 할 때 청소년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 고민인데, 청소년 공간을 확충해 주세요.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특강, 영화제, 음악회, 공연 등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인천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은 지난달 '2018 청소년정책 100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는 큰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진출,
지원이 필요해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땀지만,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고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당연히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눈높이에 맞는 현장형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도로로 나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매순간이 힘듭니다.

→ 우리 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20% 올리는 등 장애인 복지와 자활정책을 강화합니다. 특히 장애인 자활을 위해 32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장애인 쿨택시도 확대합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학교 학생들

치솟는 집값 때문에 월급쟁이가 차곡차곡 저축해도 집을 구입하기 힘듭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주거 정책을 좀 더 다양하게 세워주면 좋겠어요. 전셋집에서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맞벌이가 대부분인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경제 활성화가 절실해요”

→ 우리 시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 구도심 우선 개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공장 ‘인페쏘’ 직원들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요즘 청년들은 경제 불황, 취업난 등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취업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구와 공항이 있는 인천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인천만의 특징을 살려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취직을 하더라도 출산과 보육 문제로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청년이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연애, 결혼, 출산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시는 청년 및 시민들을 위한 취업 정보 센터 ‘잡스 인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업 정보와 상담은 물론이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지원합니다.

인하대학교 전공멘토단 학생들



“노인 문화시설과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살기 바빠서 여가를 많이 누리지 못했는데, 요즘엔 노인복지시설이나 문화센터가 있어서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으니 좋습니다. 여기에서 운동을 배우고 공부도 하면서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다음에는 뭘 배울까 고민하는 겁니다. 다만,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이 좀 더 잘 연결되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또 어르신 일자리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여인원이나 조건이 한정돼 있어 아쉽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는 11개의 노인문화센터와 10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은퇴 이후의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공간을 공감하다

공간은 하나지만, 모두 그 주인이다.
시대의 가치가 나 홀로 '소유'에서 함께하는
'공유'로 바뀌고 있다. 공유 공간은 주거와
생활 공간부터 거리, 광장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확장된다. 소통과 공유의 시대,
열린 공간이 삶의 이정표를
다시 쓰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올드 오크’ 홈페이지 제공



‘우리 동네 사람들’ 제공

SHARING SPACE

공간에 살다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시대에도 ‘공간’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집과 일터 사이를 오가며 틈틈이 먹고 쉬고 대화하는 공간을 찾는다. 살아가는 내내 공
간과 공간을 넘나든다. 우리는 공간에 산다.

도시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의 집합이다. 머무는 사람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도시가 성장하
기까지 환경오염과 사회적 불평등이 뒤따랐다. 과도한
소유욕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미니멀리즘(Minimalism)’
과 ‘비움’이 시대적 가치로 떠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
간을 공유하기로 했다. 발 딛고 선 땅, 숨 쉬는 공간을 함
께 누리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올드 오크(Old Oak)’는 세계 최대의 공
유주택이다. 공유주택이란 집 한 채에 여러 명이 살면서
거실과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 방식을 말한다. 올
드 오크는 오래된 참나무처럼 넉넉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려 500여 명이 이 안에 산다. 10m²(3평)의 사적
인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함께 쓴다.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올드 오크’ 홈페이지 제공

‘올드 오크’의 셰어 공간

함께해서 좋은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서 집을 공유하는 건 아직 낯선 문화다. 하지만 용기
있게 마음을 연 사람들이 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구 검암
동에 있는 주거 생활 공동체다. 2011년 귀촌을 꿈꾸던 청년 여섯
이 뜻을 모아, 집 서너 채에 30여 명이 머무는 작은 공동체를 만
들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조정훈 대표는 한때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살
았다. 그러다 문득 하릴없는 도시의 일상에 회의를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음 맞는 사람이 모여 함께
살기로 했다. 각자 가진 여윌돈을 모아 인천에 집을 구했다. 더
불어 살다 보니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여러 활동을 하며 남다
른 삶의 가치와 즐거움을 만들어간다. 주거지에서 400m 떨어
진 곳에 ‘커뮤니티 펍 0.4km’를 열고 소통의 범위도 넓혔다. 이
안에서 동네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평범하지
만 소중한 시간을 누린다.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

커뮤니티 펍 0.4km





빈 공간을 채우고, 나누다

긴밀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다. 하지만 아직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개개인의 공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유 공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원도심이나 개발에서 벗어난 일부 지역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활용해 여러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관계자는 도시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빈 공간의 공유에서 찾았다. ‘2018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장 최복규 건축사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소유의 개념에 머물러 있던 공간을 모두에게 열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도시에 숨어 있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축물을 찾아내 열린 공간으로 만들면 의미 있는 도시재생이 되겠지요.” 인천건축문화제는 시의 건축문화계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다. 올해 20회를 맞는 행사에는 인천건축학생 공모전의 주제를 특별히 ‘공유공간(2S : Sharing Space)’으로 정했다.



© 사진 김상덕



개항장 골목, 비어 있던 창고 건물을 재생한 아카이브 카페 ‘빙고(氷庫)’. 빙고가 생기면서 주민배 탁구대회와 프리마켓 등이 열리고, 담장 안에 숨어 있던 이웃이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너와 나의 경계가 명확해진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공유’는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동차, 집, 사무실 등 ‘소유’했던 대상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등 협업 공간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의 공유 공간은 거리와 광장, 시장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시청과 하나로 연결해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는 미래 광장은 소통을 상징하는 좋은 예다. 공간은 하나지만, 모두가 그 주인이다. 소통과 공유의 시대, 열린 공간이 삶의 이정표를 다시 쓰고 있다.



용현동 토지금고시장에 자리 잡은 ‘민재’C 카페’. 동네 사람이 모여 마음을 나누고 문화 강좌도 듣는다.

우리 동네
공유 공간



우리 마을에 있는 공간을 함께 나눠 쓰세요.
공간이 필요할 때 연락해, 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 777-8200

중구

아카이브 카페 ‘빙고’
개항로 7-1(중앙동4가 8-8)

동구

골목 도서관
송현로 17(송현동 67-40)
마을사진관 다행
우각로 11(창영동 15-7)
스페이스 빔
서해대로513번길 15(창영동 7)



요일가게
금곡로 1(금곡동 13-6)
배다리사랑방
금곡로 14-8(금곡동 15-21)

미추홀구

갤러리 카페 ‘비앙’
참외전로 288-11(송의동 124-115)
공유공간 팩토리얼
인주대로174번길 17(용현동 139-24)
우각이 학습편의점
우각로122번길 19(우각로 문화마을)
민재’C 카페
낙섬중로38번길 13-13(용현5동 617-43)



연수구

짱뽕이 어린이도서관
계림로112번길 25(청학동 552-4)
청소년창의문화터 ‘미루’
연수1동 626-11

계양구

책방산책
향교로5번길 23(계산동 981-24)
착한소비 1004 마을
‘커피밀 플러스 카페’
마장로 546(효성동 499-1)
문화갤러리 ‘포엘’
양지로 151(굴현동 504-1)
계산 그린나래
계산새로 71(계산동 1062)

부평구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화랑북로 15-3(산곡동 317-119)
청천극장
마장로473번길 7(청천1동 14-2)
갈산나빌레
주부토로 275(갈산1동 111-21)
달팽이 미디어도서관
세월천로 55(산곡1동 45-78)
쑥덕쑥덕 작은도서관
창취로10번길 26(부평동 767-155)
외골문화회관
세월천로 77(산곡1동 51-4)

남동구

벨엘 꿈나무도서관
만수서로37번길 29(만수동 109-17)
마중물도서관
백범로 232-1(만수3동 850-3)

서구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느루’
장고개로 272(가좌동 328-4)
가좌마을 신나는 공간
가좌3동 하나상가 5호
다살림레츠
심곡로 135(심곡동 285)

강화군

진강산 마을교육공동체 사랑방
중앙로874번길 22(양도면 인산리 278)



SHARING
SPACE



인천국제공항 내 인천의료관광홍보관



인천,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도시로 ‘비상’

2009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가 허용된 후 꾸준히 증가하던 방문자 수가 지난해 최초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환자 수가 12.2% 증가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지리적 접근성, 높은 의료 수준과 합리적인 가격, 외국어 지원 서비스 등 인천이 가진 무기로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글 김혜경 시 보건정책과장 | 사진 시 보건정책과

INCHEON
GLOBAL HUB OF
MEDICAL TOURISM

외국인 환자가 움직인다, 인천으로!

인천 소재의 의료기관에서 중국어나 러시아어 등 외국어 안내문을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한국의 대표 의료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천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유치가 허용된 이후, 2016년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오다 지난해 최초로 감소했다.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인 방한객의 감소와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독립국가 연합(CIS, 소련이 해체된 뒤 연방 공화국에 속한 나라 가운데 11개국이 결성한 정치 공동체) 환자들이 러시아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환자 수가 12.2% 증가했다. 2017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1만4,572명으로 서울, 경기,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인천 의료관광의 특징



접근성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에 있는 의료기관까지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전문성

인천에 소재한 약 2,800개 의료기관 중 전문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약 26개다.



합리성

인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치료 비용과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4色 매력, 의료관광 도시 인천

의료관광객이 목적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이동 거리, 의료비, 전문성, 문화적 친화성(의사소통) 등을 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는 다양한 매력을 갖춘 도시다.

첫째 — 인천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에서 인천에 있는 어떤 의료기관까지도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비행으로 심신이 지쳐 있을 외국인 환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둘째 —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는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이 가진 큰 경쟁력이다. 특히 인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낮은 가격에서부터 고가의 의료 서비스까지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셋째 — 인천에는 높은 암 치료율을 자랑하는 4개의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심장질환, 척추관절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들이 있어 중증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다.

넷째 — 외국어가 가능한 의료 코디네이터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명확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환자는 의료진에게 신뢰를 갖게 되고, 정확한 진단과 의료진의 지시사항에 대한 바른 이행 등은 치료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끄는
고부가가치산업

우리 정부는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했다. 의료관광은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외에도 숙박 및 식음료, 미용, 쇼핑 및 레저 활동 등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산업. 외국인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게 된다. 인천시가 이 사업에 발 벗고 나선 이유다.

인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국비 총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시비와 민간자원을 합해 총 14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향후 국제정세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인천의 수용태세 강화 및 신규시장 개척 등 해외 마케팅 확대를 통해 2020년에는 2만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인천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의료관광 도시로 변모할 모습이 기대된다.



해외 의료관광 박람회



의료관광 인천의 차별화 전략

외국인 환자의 목적지가 되기 위한,
인천의 노력



강화 석모도 미네랄 온천

1. 의료관광 해외 네트워크 강화 및
전략 시장별 타겟 마케팅 추진

인천시는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을 3대 전략 시장으로, 중동과 미주를 잠재 시장으로 정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인천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했으며, 해외 박람회 참가, 의료설명회 개최, 팸투어 실시 등 인천 의료를 알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3. 인천 의료관광 상품 차별화

강화 석모도 미네랄 온천, 송도국제도시, 영종도, 차이나타운 등 인천의 볼거리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웰니스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중국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마케팅도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송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송 의료 관광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2. 의료관광 기반 구축

인천시는 ‘인천 의료관광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관광정보시스템(MTIS)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 안심 서비스(Peace Of Mind), 공항과 의료기관 간 이동과 통역을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4. 다각적인 인천 의료 홍보

인천시는 인천 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해외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미국 등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 인천 의료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에 의료관광홍보관 운영 및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한 SNS 홍보도 진행 중이다.





청년의 꿈, MICE에서 이루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및 영종 복합리조트 조성,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준공 등 최고의 마이스 인프라를 강점으로 2022년까지 세계 10대 마이스(MICE : 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Event) 도시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년들의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미래 마이스 인재육성 활동을 진행해 일찌감치 청년들의 마이스 산업 진출을 돕고 있다. 마이스 서포터즈인 'Young MICE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혹은 창업, 당당히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인천관광공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Young MICE 리더' 사업은 마이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외활동이다. 마이스 실무자를 초청해 취업 컨설팅과 현장 교육, 국제회의 운영요원 실습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마이스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문의 : 인천관광공사 ⑦ 899-7439

YOUNG MICE LEADER

Q&A 01



INTERVIEW - QUESTION

1. 'Young MICE 리더'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 'Young MICE 리더'를 통해 마이스에 대한 관심이 늘었는지?
3. 현재 하고 있는 업무/프로젝트는?
4. 'Young MICE 리더' 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5. 앞으로의 진로/목표는?
6. 마이스업계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박성아(27)

'YOUNG MICE 리더' 1기, PCO 취업

- 1 | 석사 논문 방향을 고려하던 중 지도교수께서 마이스 산업에 대해 권유해 주셨다. 마침 인천관광공사에서 'Young MICE 리더' 1기를 모집하고 있어서 참여하게 됐다.
- 2 | 처음에는 마이스 산업 자체가 생소했는데, 'Young MICE 리더'를 통해 국제적인 행사 운영요원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마이스에 대한 꿈을 구체화했다. 논문도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 작성했고,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최종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
- 3 | 올해 4월 국제회의 기획업체(PCO)인 (주)피오디커뮤니케이션즈에 입사했다.
- 4 | 마이스 관련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직접 만날 수 있으니 당연히 도움이 된다.
- 5 | 마이스업계의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 일단 실무를 잘 배워서 인정받고 싶다. 나중에 박사 과정을 밟게 된다면 계속 마이스 관련쪽으로 공부해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싶다.
- 6 | 관심이 있으면 일단 도전해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참여해야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마이스업계도 전시, 국제행사, 이벤트 등 분야가 다양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봐야 한다.



Q&A
02

오승식(22)
‘YOUNG MICE 리더’ 1기, 마이스 동아리 설립, 관광어드벤처 사업 선정

- 1 | 대학에서 무역학개론 수업을 듣다 마이스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연히 ‘Young MICE 리더’ 모집 정보를 접하고 참여하게 됐다.
- 2 | ‘Young MICE 리더’ 활동을 통해 마이스 산업에 좀 더 깊숙이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Youth Convention’에 인천관광공사와 참가해 상금을 획득하기도 했다.
- 3 | 현재 인천대 무역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데, My's라는 마이스 동아리를 만들었다. KT&G,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인천시가 주최하는 창업 관련 공모에서 우리 동아리가 관광어드벤처 사업에 선정됐고, 오는 11월 11일에 인천대에서 행사를 연다. 마이스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생들이 모두 알 만한 유명 동아리로 키우고 싶다.
- 4 | 마이스 분야는 확실히 실전 경험이 중요한데, 경력이 없으면 국제행사 운영요원으로 참여하기 힘들다. 그런데 ‘Young MICE 리더’에서는 운영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팀 프로젝트 경험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 5 | PCO 또는 국제전시 기획업체(PEO) 창업이 목표다. 마이스에 뜻이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
- 6 | 마이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좋은 인성을 갖고 늘 기회를 찾아라.



Q&A
03

정혜선(25)
2017 태국 로드쇼 참가, 2018년 인천관광공사 취업

- 1 | 인천대 경제학과에 재학 시 무역학과 교수님의 마이스 관련 수업을 듣고, 관심이 생겼다. 인천대와 인천관광공사가 MOU를 맺어 진행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덕분에 ‘2017 태국 로드쇼’에 참가하게 됐다.
- 2 | 비교적 마이스를 늦게 접했기 때문에 ‘Young MICE 리더’에는 참여할 수 없어 아쉬웠다. 대신 주말마다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운영요원을 하며 네트워크를 쌓았다. 다행히 ‘2017 태국 로드쇼’에서 마이스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 3 | 인천관광공사 전시팀에서 일하고 있다. 컨벤시아가 더 많은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 4 |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관련 스펙을 쌓느라 캐나다에서 영어공부하고,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에서 마케팅을 배우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 5 | 일단 인천관광공사에 취업했으니, 최선을 다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 나중에 직접 기획한 전시회를 여는 게 꿈이다.
- 6 | 마이스업계가 일의 강도에 비해 보수가 많지 않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다.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쌓으면 보수도 좋아지니까 포기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해라.

손난영(23)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4학년, 인천관광공사 파견직 근무

- 1 | 무역학부 수업에서 교수님이 ‘MICE’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그때부터 마이스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15년도에 국제 계절학기를 통해 송도컨벤시아 컨벤션팀을 알게 되었고, 전국 Young MICE 네트워크에 인천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그게 ‘Young MICE 리더’의 시초가 되었다. 그 인연을 계기로 2016년도에 교수님 추천을 받아 학생 신분으로 인천관광공사에서 1년간 인턴생활을 하게 됐다.
- 2 | 2016년 제1기 ‘Young MICE 리더’ 사업부터 실무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마이스 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Young MICE 리더’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 3 | 2018년 4월부터 인천관광공사 컨벤션뷰로팀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 ‘Young MICE 리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일에 애정이 많다.
- 4 | 당연하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체험이 주어지니, 마이스 관련 취직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
- 5 |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운영하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 마이스가 다른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길을 찾고 있다.
- 6 | 처음 시작은 누구나 어렵다. 마이스를 어려워하지 말고, 실무적인 경험을 얻도록 노력해라.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



Q&A
04

Q&A
05



이지수(23)
‘YOUNG MICE 리더’ 3기, 2018년 말레이시아 로드쇼 참가

- 1 | 마이스 기획론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Young MICE 리더’ 프로그램을 알려주셔서 참여하게 됐다. 인천관광공사에서 산학협력으로 ‘2018 말레이시아 인천 마이스 로드쇼’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했다. 로드쇼에서 현지 관광객 대상으로 한국, 특히 인천을 방문해 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2 | ‘Young MICE 리더’ 활동을 통해 또래들과 함께 현장 행사요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마이스 산업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됐고, 마이스 관련 꿈도 갖게 되었다.
- 3 | 마이스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무역학과 학생이다.
- 4 | 학생들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로드쇼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Young MICE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실무경험이 생기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로드쇼를 방문객의 입장이 아니라, 주최하는 입장에서 참여해 현실적이다.
- 5 | 마이스 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 6 | 마이스는 복합적인 산업이다. 다양한 경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든 적극적으로 임해라.

2018 아시아 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
인천의 우수한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을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국제기구와 MICE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일시 11월 9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및 회의실
대상 국제기구 진출 및 MICE 분야 직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규모 아시아 및 국내 소재 국제기구 MICE업체 60개소
문의 인천관광공사 컨벤션뷰로팀 ☎899-7433

짜장면이 살려낸, 인천 차이나타운 6만 명의 거주지, 뉴욕 차이나타운

경인전철 1호선을 타고 인천역에 내리는 순간 바다 내음이 폐부를 파고든다. 역 밖으로 향하며
짬내에 익숙해질 즈음 길 건너편으로 시선을 돌리면 한자로 ‘중화가(中華街)’라고 쓰인
거대한 문이 보인다. 한국에서 찾기 힘든 중국식 대문인 ‘패루’가 인천 차이나타운엔 세 개나 있다.
그 패루들 사이로 1883년 개항 이후 부침과 부활의 역사를 견뎌낸 차이나타운이 펼쳐진다.

글 홍수경 문화 칼럼니스트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셔터스톡



INCHEON CHINATOWN



인천 차이나타운



GOOD MORNING INCHEON

VS

NEW YORK CHINATOWN



뉴욕 차이나타운

근대사와 악수하는 거리

1990년대 말만 해도 인천 차이나타운은 쇠락한 동네였다. 그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오군란 이후 외국인 거주지로 지정된 이 지역에 청나라 상인들이 정착하면서 새로운 음식이 전파됐다. 일본인과 서양인도 함께 오갔기에 아시아와 서구 문화 양식이 혼재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상업과 무역으로 번성하던 차이나타운은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상처를 입었고, 1970년대 외국인 부동산 제한법 등 반이민자 정책으로 점차 커뮤니티의 힘을 잃어갔다. 그러다 2000년대부터 이 지역을 역사적 관광지로 여기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면서 관광 특구로 재생 과정을 거쳤다. 현재 이곳은 한국에서 유례없이 번성하는 차이나타운으로 역사의 새로운 챕터를 쓰는 중이다.

차이나타운 번성의 일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짜장면이다. 인천 거주 중국인들이 야채나 고기를 넣은 춘장에 면을 비벼 먹었던 방식이 짜장면의 시초이며, 당시 인기 식당이었던 ‘궁화춘’에서 한국식 짜장면을 처음 선보였다. 지금도 남아 있는 ‘궁화춘’ 건물은 그 의의에 맞춰 ‘짜장면 박물관’으로 되살아났다. 물론 먹거리가 차이나타운 스토리의 전부는 아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정착하면서 세운 석조 건물들이 복고적인 운치를 더한다. 맥아더 장군 동상이 서 있는 자유공원까지 올라가면 이 지역의 근대사를 걸어서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은 단순히 중국 음식점이 모여 있는 동네가 아니라 개항의 분위기를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는 테마파크에 가깝다.



INCHEON CHINATOWN

인천 차이나타운

위치	인천시 중구 북성동, 선린동 일대
주요 먹거리	짜장면, 공갈빵, 홍두병, 화덕만두, 치빫코야키 등 한국식 중국 요리와 중국 길거리 음식
액티비티	짜장면박물관, 한중박물관, 인천아트플랫폼, 송월동동화마을, 자유공원, 개항장 일대 등

V S

NEW YORK CHINATOWN

뉴욕 차이나타운

위치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 지역
주요 먹거리	샤오롱바오, 딤섬, 북경오리, 우육면 및 쌀국수, 에그 타르트 등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요리
액티비티	미국의 중국인 박물관(MOCA), 마하야마 사원, 콜럼버스 공원, 아지 이치반 쇼핑, 차이니스 아이스크림 팩토리 등



중국계 음식의 경연장

뉴욕 차이나타운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민자의 거주지로 살아남으며 주목받았다. 1860년대부터 대륙 횡단 철도 공사를 위해 일하러 온 중국인들이 뉴욕에 머무르면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됐다. 1968년 차별 철폐 정책으로 이민이 확대되자 홍콩과 광둥 지역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됐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베트남계 중국인들이 뉴욕으로 넘어왔고, 1980년대부터는 중국 푸젠성과 대만의 이민자들이 이주해 차이나타운 인구 구성은 더욱 복잡해졌다.

뉴욕 차이나타운의 자랑거리는 무엇보다 맛있고 다양한 중국 음식에 있다. 중국식 볶음 요리를 접목한 ‘참수이’가 뉴욕 서민들의 인기를 끌면서 방문객이 다양해졌고 미국인들을 위한 투어가 성업하면서 차이나타운은 점차 빈민가에서 이색적인 관광지로 변모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중식당의 고급화는 차이나타운을 맛집 거리로 승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는 인구 6만 명이 모여 사는 규모가 큰 차이나타운이자 뉴욕에서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로 거듭났다. 요즘에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이민자들이 모여 살면서 음식의 종류가 더욱 다채로워졌다.

뉴욕 차이나타운의 또 다른 매력은 뉴욕인의 활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리라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인 맥도날드나



(위) 다양한 중국 음식의 향연장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빠질 수 없는
북경오리 전문점
(아래) 짜장면의 발생지인
인천 차이나타운의 짜장면

하겐다즈의 간판조차 한자로 적혀 있는 이 붉은색 넘치는 거리에 다양한 인종이 활보하는 모습은 ‘코스모폴리탄’ 뉴욕의 한 단면으로,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다. 점심시간에는 근처 직장인과 관광객이 모여들어 시끌벅적하다.

안타까운 것은 뉴욕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다. 차이나타운 또한 재개발의 위기를 맞고 있어 이런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다.

도시 재생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인천아트플랫폼



특별한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은 거주지로서의 활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도시 재생의 아이디어가 빛난다. 인천만의 특별한 역사를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현재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인천아트플랫폼’이나 ‘구 제물포구락부’ 같은 매력적인 형태로 등장한다. 인천아트플랫폼은 110여 년 전 개항기 때 지은 창고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다. 또 1902년에 건축한 구 제물포구락부는 외국인들의 사교클럽으로, 현재 스토리텔링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의 역사·문화적 자산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가 인천만의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차이나타운의 진화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해질지 그 미래가 기대된다.



뉴욕 차이나타운의 신년 축제 풍경

“방금 채집한 그 소리, 이미 역사입니다”

안병진 경인방송 PD

사진 김보섭 | 글 유동현



물때 맞춰 모여든 사람들, 하나같이 바다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오후 2시 30분, 척후병을 자처한 갈매기의 울음 이 요란해진다. 갯골 따라 물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 갯물은 고깃배들을 밀고 온다. 부둣가에 밧줄을 매자마자 선 상은 발 디딜 틈이 없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아우성이 한낱 포구에 가득하다. 오늘도 북성포구는 난장(亂場)이다. 그 순간, 비릿한 날것으로 짝 찬 아수라장을 담은 사내가 있다. 그는 도심의 후미진 포구에서 벌어지는 반짝 ‘선상 파 시’를 소리로 담고 있다. 헤드폰을 끼고 털 달린 마이크(wind jammer)를 양손에 든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영화 ‘봄날 은 간다’의 사운드 엔지니어 유지태다. 경인방송 프로듀서 안병진(42) 씨는 요즘 ‘소리 채집꾼’으로 통한다. 2년 전쯤 그는 시청 사무실을 찾아와 필자의 책 몇 권을 얻어 갔다. 그 시점이 인천의 소리를 활자에서 찾아 나설 즈음이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소리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추출해 낸 기억의 일부인 ‘소리’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눈보다 귀가 열렸던 시절이 있었다. 항구의 뱃고동 울림, 골목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 새벽 시간 교회 타종, 행상의 외침, 심야라디오 방송... 어느덧 우리는 소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

안 PD는 소리 채집을 위해 지난해 섬에서 살다시피 했다. 굴업도 개머리언덕을 타고 넘는 바람 소리를 비롯해 백령도 두무진 바다 속 해녀 물질 소리, 콩돌해변의 자갈 구르는 소리 등을 담았다. 올해는 육지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인천역 뒤 화물열차 소리, 자유공원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 수인곡물시장 참기름 짜는 소리, 연안부두 수산물시장 경매 소리, 내리교회 종소리, 강화 초창 짜는 소리 등 20개가량을 채집했다.

관심 밖의 소리는 ‘소음’일 뿐이지만 자신의 추억과 어우러지면 그 소리는 시간을 일깨우는 ‘음악’이 되기도 한다. 매 주 목요일 오후 5시 그가 연출하는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을’을 통해 채집한 소리를 청취자에게 들려준다. 올드 미디어로 치부되는 라디오, 그것도 지역 라디오 방송에 귀담아들을 청취자는 몇이나 될까. 그는 라디오 전파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인천의 소리를 주제로 한 캠페인도 함께 펼치고 있다. 악전고투, 고군분투하는 이 부분에서는 영화 ‘라디오 스타’가 살짝 연상된다.

“조금 전 잡은 소리는 이미 그 소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소리입니다. 시간을 타고 간 그 소리는 추억이자 ‘역사’입니다.” 포구의 난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이미 우리 곁을 스쳐 지난 것처럼 지상에 있는 모든 소리는 그곳, 그 시간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소리의 기록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훗날 자신이 담아낸 인천의 소리들이 박물관의 ‘유물’이 될 것이라 내심 기대한다.

그는 학익동에서 태어나 줄곧 인천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해 광성고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 국문학과에 진학했다. 평생 글만 쓰면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을 깨닫고 언론사 문을 노크했다. 첫 직장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사였고 이후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거쳐 2007년에 경인방송국으로 옮겨왔다.

그는 얼마 전 동구 창영동 배다리 주인이 되었다. 방송작가인 아내와 원도심 골목 산책을 즐기던 중, 40년 된 2층 벽돌집이 눈에 들어왔다. 바닥 면적 15평짜리 협소주택을 오밀조밀 뜯어 고쳤다. 옥상에 오르면 현채방이 보일 듯 말듯하고 창문으로 옆집 기와 처마가 들어온다. 머지않아 ‘소리 채집꾼’ 안병진의 녹음기에는 집 앞 창영초교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옆집 기와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도 담길 것이다.

CULTURECALENDAR

10

02

[SAC ON SCREEN]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이건 음악회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무료, 사전 전화 예매
☎ 460-0560

05

시립교향악단
제4회 '사랑 태교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1588-2341

06

2018 거미 전국투어콘서트
LIVE-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VIP석 13만2,000원, R석 11만원,
S석 9만9,000원
☎ 2279-6581



2018 多복多복 인천페스티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무료
☎ 440-6662

06

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남사당놀이와 함께하는
'기승전~흥'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우리가족-토요일
N클래식 시리즈 IV
'해천추범-바보들의 학교'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전석 6,000원
☎ 505-5995

크리스토프 루카스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289-4275

07

제21회 정기연주회
'스크린과 함께하는
영화음악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010-6327-2401

2018 인천안무가전
'사랑'에대한 물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 438-2004

09

만9,900원의 행복
서영은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VIP석 2만9,900원,
R석 1만9,900원,
S석 9,900원
☎ 1544-3901

10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2만원
☎ 446-3320

11

제15회 아디엘 앙상블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10-4854-4132

12

제3회 인천사랑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440-2492

홍길동과 떠나는 '길동외전'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뮤지컬 '하모니'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월 13일(토)까지 공연
12일(금)/ 오후 7시 30분
13일(토)/ 오후 2시, 6시
R석 7만원, S석 6만원
☎ 1588-2341

연극 The Rocket - 더 로켓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10월 13일(토)까지 공연
12일(금)/ 오전 11시
13일(토)/ 오전 11시, 오후 3시
전석 1만5,000원(인천시민, 유료 회
원, 예술인 패스 50%할인)
☎ 460-0560

14

2018 클래식시리즈 V
어쿠스틱 카페 내한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1588-2341

17

제9회 인천 뮤직플라이
플룻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010-6204-6431

2018 커피콘서트8

판소리극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18

가을맞이 노래의 향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553-5713

19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7회 정기연주회
'이병욱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10월 20일(토)까지 공연
19일(금)/ 오후 7시 30분
20일(토)/ 오후 3시, 7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 460-0560

19

어린이 환경연극 '쓰레기 꽃'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20

2018 '자이언티 X 수란'
콘서트-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9만9,000원,
R석 8만8,000원,
S석 7만7,000원
☎ 1566-6551



21

2018 '질은'콘서트-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 1566-6551

선데이 콘서트-Violinist
송영의 Autumn Breeze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Sound of Screen & Musical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전석 1만5,000원
☎ 010-3724-7257

23

가을맞이 가곡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3만원, R석 2만원
☎ 888-9911

24

BOOMI's JAZZ Odyssey-
Broadway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3만원
☎ 010-3299-5703

25

인천시립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한국 창작 합창곡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000원
☎ 1588-2341

양희경과 함께하는
'달콤한 클래식'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5,000원
☎ 500-200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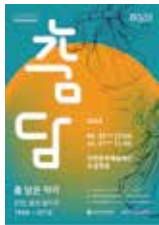
부평아트센터
인천시립교향악단 With
영아티스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5,000원
☎ 500-2000

27

시립무용단
'토요춤·담 : 춤 담은 자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5,000원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 1588-2341



27

폭스 클래식 콘서트 '암모암모'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전석 7,000원
☎ 505-5995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 듀오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4만원
☎ 289-4275

28

인음챔버오케스트라의
Virtuoso 초청
두 번째 이야기 현을 위한
세레나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2만원
☎ 873-7772

인천시민하모니카양상을
제5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1만원
☎ 010-9025-7384

31

마티네콘서트 마실
경기도립무용단-
천년경기 우리 춤의 향연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3,000원
☎ 460-0560

시월에 로맨틱 발레
'발레리나 & 발레리노'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이달의 展

2018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조각전
'컬러 그라운드 Color Ground'
9월 18일(화)~10월 31일(수)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이명선 개인전

9월 28일(금)~10월 4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노화정(시인) 시화전

10월 3일(수)~31일(수)
갤러리 도솔

It was beautiful.

10월 3일(수)~16일(화)
플레이스막 인천

부평영아티스트 4기 선정 작가전

'Perennial Inspiration'
10월 4일(목)~28일(일)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문화성서 인천시대실현 인천세계미술문화제

10월 5일(금)~11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 전시실

목의 그림자전

10월 5일(금)~11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제12회 상해-인천-청도 국제수채화교류전

10월 12일(금)~18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최수동 개인전

10월 12일(금)~18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 전시실

제7회 한·중 문화 교류전

10월 19일(금)~25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4회 김정민 개인전

10월 19일(금)~25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 전시실

사천모임 율타리 창립 사진전

10월 19일(금)~25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12회 빛과향기 회원전

10월 19일(금)~25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제10회 남동인천

10월 22일(월)~27일(토)
갤러리 화·소

우 리 가 주 인 공 인

인 천

골 목

축 제

10월, 100년 도시 인천의 골목이 시민 주도형 축제로 물든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인천개항장예술축제’와
‘개항장 문화재 야행’, 동인천역 시장 상인과 손님이 함께 엮어가는
‘낭만시장 축제’가 그것이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인천의 낮과 밤을 오감으로 느껴보자.

같은 꿈을 꾸는
시장 상인과 시민

동인천역 ‘낭만시장 축제’

동인천역의 역사는 길고 사연도 많다. 1899년 축현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된 동인천역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와 시련
을 겪었다. 부서지고 새로 짓고 몇 번이나 역명이 바뀌면서도 동인천역은 구
한말 이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낭만시장 축제는 동인천역 주변의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획됐
다. 1970~1980년대 인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한 곳인 중앙시장과 송현
시장,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묶어 낭만시장이라고 새로 명명하고 과거의
활기를 되살리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 축제는 낭만상회, 낭만 무대, 낭만 레
트로 등 세 가지 행사로 구성된다. 낭만상회는 추억의 먹거리와 야시장, 어
린이 벼룩시장 등이 진행된다. 낭만 무대에서는 음악 공연과 버스킹, 마임,
플래시몹 등이 열릴 예정이며 지역 대학생과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화려한 한복 패션쇼도 준비 중이다. 낭만 레트로에는 과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흑백사진관 등으로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낭만시장 축제

일시 : 10월 6일(토)~7일(일) 낮 12시~오후 9시 30분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프로그램 : 낭만상회(추억의 먹거리, 야시장, 어린이 벼룩시장),
낭만 무대(음악 공연, 버스킹, 마임, 플래시몹, 한복 패션쇼),
낭만 레트로(한복&교복 체험, 흑백사진관, 스탬프 투어)
문의 : 인천관광공사 ① 899-7423 ④ www.romancemarket.co.kr

예술로 하나 되는
예술가와 시민

인천개항장예술축제와
개항장 문화재 야행

개항장 문화지구는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 사이에 위치하며
1883년 개항한 인천항의 근대사가 곳곳에 녹아 있는 곳이다. 도시
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이곳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가을의 낭만을 더한다.
먼저 올해 처음 열리는 인천개항장예술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예
술단체가 중심이 돼 클래식, 재즈, 포크, 록, 합창, 무용, 뮤지컬, 전
통음악 등 다채로운 예술 무대를 선보인다. 주말에는 시민 참여
무대가 펼쳐진다. 일반 동호회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뮤직 스테이
지와 댄스 스테이지 등은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소중한 기회를 안
겨준다. 지난 9월 성황리에 마무리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2차
행사로 다시 시민과 하나 된다. ‘문화재와 함께 떠나는 밤마실’이
라는 콘셉트에 맞게 인천항의 근대사와 문화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유유자적 거닐다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곳곳에
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에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문화해설사와 함
께 개항장의 역사를 알아보는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은 사전 예
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야행 홈페이지(culturenight.
co.kr)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선착순 무료다.



2018 인천개항장예술축제

일시 : 10월 12일(금) 오후 6시 개막 / 10월 13일(토)~14일(일) 오후 2시부터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및 신포동 공간(흐르는 물, 버텨라인, 다락소극장)
프로그램 : 음악·무용·타악·뮤지컬 등의 공연 프로그램,
전시·체험 프로그램, 아트마켓 등
문의 : 인천문화재단 축제문화팀 ① 455-7183 ④ www.ifac.or.kr

개항장 문화재 야행

일시 : 10월 6일(토)~7일(일) 오후 6시~11시
장소 : 개항장 문화지구
프로그램 : 문화재 및 민간 문화시설 야간 무료 개방, 인천 개항장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 스탬프 투어, 저잣거리
문의 : 시 문화재팀 ① 440-4481 ④ www.culturenight.co.kr



NEWS BRIEF

500인 시민시장과 인천시장이 ‘열린광장’에서 만난다

- 민선 7기 출범 100일! 시민토론회 개최



우리 시는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10월 8일 시청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 전략을 시민과 공유하고, 인천의 주인인 ‘시민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로’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인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500인 시민시장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민선 7기 정책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다양한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 7기 시정 방향과 미래 비전의 내용을 담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비전 슬로건을 확정한다. 비전 슬로건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공모한 3,052건의 후보작 중 전문 심사단의 1차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3건을 상정, 최종 1건을 현장투표로 결정한다. 문의 : 시 소통담당관실 ☎ 440-2199

어린이집 차량에 안심벨 설치

인천시가 올해 안에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한다. 시는 인천 2,151개 어린이집 중 차량을 운행하는 803개 어린이집의 통원차량 1,074대에 안심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안심벨은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내부를 모두 확인하고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문의 : 시 출산보육과 ☎ 440-2839

어린이용 투명 우산 나눠드려요

우리 시는 지난 9월부터 시청 견학 어린이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빗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용 투명 우산을 지급하고 있다. 시청을 견학하러 온 어린이의 경우 2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안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으면 우산을 받을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각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면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 후 우산을 나눠줄 예정이다. 우산은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반사광 바이어스



광역단체 최초 300만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우리 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시민 누구나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6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보장 항목과 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쯤 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안전정책과 ☎ 440-5735



광역시 최초 ‘공론화위원회’ 제도화 추진

우리 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 전체 과정의 최종 결과를 심의한다. 또 비상설위원회인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별 토론 진행과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맡는다. 한편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시 소통담당관실 ☎ 440-2417

‘아트센터 인천’ 11월 문 연다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문화시설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이 11월 16일 개관을 기념해 첫 공연을 갖는다. 11월 16일 첫날에는 인천시립교향악

단이 무대에 오르며, 11월 17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이탈리아 산타 체실리아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 8,570㎡ 규모에 1,727석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은 국내 최고 수준의 소리 반사 및 소음 차단 시설을 갖춘 교향악 전문 연주장으로, 예술의전당과 제2롯데월드 롯데콘서트홀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문의 : 인천경제청 ☎ 453-7232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시작

우리 시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을 시행한다. 전기이륜차는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서 4시간 정도면 충전을 완료할 수 있으며 완충 시 약 40~80km 주행이 가능하고 연료비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약 15%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올해 보급 계획은 50대로, 대당 보조금은 23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다. 경형, 소형 등 일부 차종은 사용하던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시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440-4357

남동산단 무료 차량이동 서비스

우리 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열악한 이동수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빙 콜’ 사업을 시행한다. ‘무빙 콜’은 산업단지 내 교통편의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화(☎ 1811-6575)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산업단지 곳곳에 배치된 ‘무빙 콜 차량’ 6대를 이용해 오전 10시~오후 5시 산업단지 내 어디든 무료로 이동할 수 있다. 문의 : 시 일자리경제과 ☎ 440-4233

서울대학교와 4차 산업 로봇 분야 협력

우리 시는 지난 9월 12일 서울대학교와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 예술과학센터가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에 입주해 공연용 로봇 콘텐츠인 드림로봇을 개발하고, 11월부터 로봇타워 1층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로봇과 예술의 조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또 인천로봇랜드 내 체험형 공익시설을 포함한 로봇 콘텐츠 기획·자문·공동개발 등에서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 시 신성장산업과 ☎ 440-3106



인천시 건축상 대상에 ‘인천공항 T2’ 선정



올해 초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2018 인천시 건축상’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제2여객터미널은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한 ‘셸 구조’가 돋보이고, 내부 공간의 체적과 수직 및 수평의 구조가 연출되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시민참여 투표에서 최고 득표(563명, 45%)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인천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송도소방서’, 전시장·레스토랑 등으로 활용되는 송도국제도시 ‘CAISSON24(케이스 24)’, 청라국제도시 내 단독주택 ‘그 나 집’ 등이 선정됐다. 서구 ‘인천로봇랜드’, 남동구 단독주택 ‘서윤재(徐尹齋)’, 중구 영종하늘도시 인근 근린생활시설 ‘K.P타워’ 등은 장려상을 받았다.

문의 : 시 건축계획과 ☎ 440-4724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시내버스 신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늘어난다. 우리시는 4개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6개를 폐지하는 등 26개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새로 운행하는 노선 가운데 310번과 330번은 각각 서구 검단사거리와 중구 신흥동을 출발해 인천공항 2터미널을 오가게 된다. 이들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 인천공항 2터미널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현재 301·1번, 308번 등 2개 노선(12대)에서 4개 노선(30대)으로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 440-3952



상습 침수지역 4곳 지하 빗물저장시설 구축

우리시는 2021년 말까지 시내 상습 침수지역 4곳에 지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남동구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간석4동 희망의 숲, 부평구 부개2동 세모공원, 서구 석남1동 강남시장 주변이다. 시는 국비 399억원을 지원받아 이 지역에 각각 1만1,000~3만 5,000t의 빗물을 지하에 저장한 뒤 하수관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수저류시설이 가동되면 4개 지역에서 총 1,040가구가 침수 피해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시 재난예방과 ☎ 440-3362

‘3자녀 이상 가구’ 인천국제공항 주차료 할인

3명 이상 자녀를 둔 운전자는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료를 50% 할인받는다. 인천국제공항은 10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parking.airport.kr)를 통해 미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11월 1일까지는 현장에서 ‘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깎아준다.

문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 1577-2600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생후 6개월부터 12세까지 확대

인천지역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된다. 우리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난해 생후 6~59개월 이하에서 생후 6개월~12세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출생자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초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기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514곳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42

‘전국 최초’ 완전 무상교복·무상급식 시행



우리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하고 결과는 정당한 평등교육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동선언에 따라 내년 인천의 중·고교 신입생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 18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

5만2,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1,000원씩 교복 구입비가 지원된다. 157억원의 예산은 인천시(구·군 포함)와 인천시교육청이 50%씩 부담한다.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 혜택을 주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이 처음이다. 또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3~5세 3만2,000명 원아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5~8%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에 교육청이 참여해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문의 :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 440-2162

중소기업 기숙사 임대료 지원사업 확대

우리시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대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밖 중소기업 기숙사 임대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시가 임대료의 80%(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기업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 자여야 한다. 시는 당초 50명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원자가 80명을 넘어서 목표치를 100명으로 높이기로 했다. 사업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 비즈오케이 누리집(bizok.incheo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42



‘검암역세권’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계획 반영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지에 인천 공항철도 검암역 일대 역세권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신규택지 17곳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서구 검암동 검암역세권에 공동주택을 202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기획예산실에 비치된 관계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2일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 260-5453, 서구청 ☎ 560-5903

상습 체납차량, 야간에 번호판 뺄다

우리시는 이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상습 체납차량 집중 통합영치 활동을 벌인다. 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우리시는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인터넷 동호회의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 또 시는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 440-3682



량의 번호판을 예외 없이 뺄 방침이다. 또 소유자 명의를 다른 ‘대포차’도 단속해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납세협력담당관실 ☎ 440-4532



IFEZ
NEWS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착착

연세대학교가 송도국제도시에 최대 1,0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윤도홍 연세의료원장과 이경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방문해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위치한 송도 7공구 병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8월 국내사업 부서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또 윤도홍 의료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의대학장, 약학대학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송도세브란스 글로벌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건립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방향과 운영 전략 외에도 산·학·연·병원 글로벌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현재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해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기업 생고뱅,
송도바이오클러스터 내 공장 건립

프랑스 기업 생고뱅이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 첨단 바이오 공정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생고뱅은 미국 포춘지 선정 글로벌 200위 기업으로 첨단재료를 개발 및 생산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9월 20일 송도 G타워에서 생고뱅코리아와 ‘생고뱅 바이오 플루이드 시스템(Fluid System : 바이오의약 공정상 세포 배양액 및 원료의 이동 및 보관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군)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생고뱅의 100% 자회사인 생고뱅코리아는 총 2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Ki10 부지(송도동 218) 9,663㎡에 전제면적 1만3,293㎡,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제조시설을 오는 11월 착공해 내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생고뱅 바이오 공정 제조 시설이 문을 열면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에도 생고뱅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송도바이오클러스터의 가치사슬 생태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을왕산 일대에 영화·드라마
테마파크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중구 용유도 을왕산 일대에 영화·드라마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을왕산 개발 공모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을 평가해 최고점을 얻은 에스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2,300억원을 들여 을왕산 일대 80만7,000㎡에 ‘씨네라마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드라마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과 제휴해 개발 콘셉트에 맞게 테마파크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공모로 을왕산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용유무의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
홍보관 운영



인천경제청이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Smart Cities Summit Asia) 2018’에 참가해 IFEZ 스마트시티 홍보관을 운영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200여 개의 도시 대표단과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국내외 지자체 및 기업이 함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자체 개발한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바로버스 등 IFEZ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홍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모델의 국내외 확산에 주력했다.

IMAGE NEWS

평화, 새로운 미래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9월 19일 밤,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한민족 #평화와 통일의 꿈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평양공동선언’
을 통해 더욱 무르익었다.

01

‘열렬히’ 환영합니다!

인천 출신 두 예술가, 한상익 시인과 최영섭 작곡가가 만든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염원이 현실로

우리 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환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기대

02

서해 NLL ‘바다의 화약고’에서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 이번 군사 분야 합의로 2004년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약속 복원 및 강화
- 서해 NLL 평화 정착으로 어민들의 조업 규제 완화 및
조업 구역 확장 가능

#남북 어민이 평화롭게 조업하고 #함께 만선의 노래를
부르는 #‘바다의 개성공단’을 곧 #서해에서 볼 수 있다.

03

**인천,
동북아 평화특별시로!**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 인천’

- 남북협력기금 10억원 적립
- 전국 최초 통일 관련 서비스 종합 지원 ‘인천통일+센터’ 개소

인천은 #통일경제특구의 요충지 #남북 교류와 소통의
주요한 장으로 #‘동북아 평화특별시’로 자리매김

04

COUNCIL NEWS



인천시의회는 지난 8월 29일 시작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9월 18일 모두 마무리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산안 등 53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제247회, 제248회 임시회와 비교해 볼 때 시정 질문과 각종 의안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 또한 67건으로 지난 회기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제8대 의원들이 시정 및 교육·학예에 대한 정책 방향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원은 제248회 임시회 이후 33건이 접수됐다. 단순한 민원 처리로 끝나지 않게 남동공단 화재 현장,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피해 관련 현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소방본부 방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9월 19일 인천소방본부를 방문해 소방 분야 당면 현안사항을 듣고 현장 소방대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획행정위 위원들은 본부 영상회의실에서 김영중 소방본부장으로부터 검단소방서 개서, 소방학교 이전, 119안전체험관 건립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뒤, 종합상황실과 신기119안전센터를 찾아 근무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또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소



방학교를 방문해 소방 교육여건과 훈련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 소방관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의원연구모임’ 시작

인천시의회 정책개발연구회가 지난 9월 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모임’을 시작했다. 이날 모임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가 ‘정의는 정의로운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해 참석한 의원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산업경제위원회,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피해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특고압 송전선로 매설로 지역 민원이 발생한 부평구 삼산동 일원에 직접 방문해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실제 전자파 발생 정도를 측정, 조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서 산업경제위 위원들은 한전

측 관계자로부터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 참석한 인천시, 부평구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이 협력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뮤지엄파크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문화랜드마크 복합문화단지 조성 예정지인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인천뮤지엄파크는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부지에 시립미술관 건립, 시립박물관 이전 및 문화 산업시설 등 문화 인프라 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복지위 위원들은 원도심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시민에게 보다 품격 있는 문화향유권 제공을 위해 복합문화단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 추진에 대한 질의문답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의원총회 의실에서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학생·학부모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적 가치구현 방안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조선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시의회는 교육협치 공동협약의 주체로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의 연결자이자 협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현안사업 점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시 종합건설본부장, 수산과장,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현장과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현장, 소래어촌계, 부평동·효성동·석남동·신흥동 뉴딜사업 현장 등을 방문했다. 건설교통위 위원들은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시설물을 살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의회저널’은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의회사무처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기 -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저층주거지 재생 아이디어 공모

우리 시는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자
‘오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자격 :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공모 내용 :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아이디어, 빈집 활용 아이디어,
동네 특화사업 발굴, 마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자생조직 구성 방안

제출 기간 : 9월 27일(목)~10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택1)

- 전자우편 : joogwanho521@korea.kr

- 우편, 방문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민원동 3층 주거환경과

- 홈페이지 : 시 홈페이지→뉴스 소식→인천 소식→새소식

문의 : 시 주거환경과 ㉠ 440-3478



‘평양성도’ 보물 지정 기념 특별 강좌

인천시립송암미술관은 ‘평양성도(平壤城圖)’ 보물 지정(제1997호)을 기념해 10월 4일부터
총 3회에 걸쳐 특별 강좌 ‘평양 혹은 기성, 두 도시 이야기’를 개최한다.

특강 일시 : 10월 4일(목), 12일(금), 19일(금) 오후 2시

특강 장소 : 송암미술관 별관 1층 강당

신청 기간 : 9월 27일(목)부터 마감 시까지(선착순 60명)

신청 방법 : 송암미술관 홈페이지(㉡ songam.incheon.go.kr) 혹은 전화 신청

문의 : 송암미술관 ㉠ 440-6781, 6785, 6786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세계 최초 1인 미디어 분야의
국제 행사인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3일(토)~4일(일)

장소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내용 : 유명 1인 미디어 제작자 공연, 관련 분야 200개 규모
부스 전시 등

입장권 : 사전 등록 시 1만원, 인천시민 7,000원,

인천 초중고학생 무료(사전 등록 가능)

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260-0654

제48차 IPCC 총회 안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제48차 총회가 개최됩니다.

일시 : 10월 1일(월)~5일(금)

장소 : 송도컨벤시아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플랫폼’ 명칭 공모

‘인천사랑 전자상품권(현, 인처너카드)’ 명칭을 공모합니다.

응모 기간 : 10월 15일(월)~19일(금)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방법 : 전자우편 접수(opjin25@korea.kr)

시상 : 1등(1명) 300만원 전자상품권, 2등(2명) 100만원 전자상품권,
3등(5명) 20만원 전자상품권, 4등(40명) 5만원 전자상품권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 440-4212

국악문화학교 63기 수강생 모집

인천예총 국악회관에서는 우리 소리를 통해 전통예술을 경험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악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기간 : 10월 1일(월)~12월 21일(금)

장소 : 인천예총 국악회관

대상 :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등

홈페이지 : ㉡ www.kukakhall.co.kr

문의 : 인천예총 국악회관 ㉠ 876-8364

2018 마을활동가 오픈 컨퍼런스

인천 전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공론장이
펼쳐집니다. ‘인천마을공동체, 협치로 움직인다’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기반 인천마을공동체의 지속성과 제도, 정책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신청 기간 : 10월 8일(월)~11월 2일(금)

신청 대상 : 250명(마을과 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행사 일시 : 11월 9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행사 장소 :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회의실

신청 :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 ㉡ www.incheonmaeul.org

문의 : 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 777-8200

‘백제 사신길 도보 투어’ 참가자 모집

연수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하는 백제 사신길 도보 투어를 진행합니다.
연수구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수요일/10월 10일, 17일, 24일 오후 2시~6시

토요일/10월 13일, 20일, 27일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 백제 사신길(삼호현-백제우물터-벽화거리-송도역전시장-
옥련재래시장-능허대지)

참가비 : 무료

접수 : 전화 및 방문 접수(연수구 비류대로 299 청학문화센터 내)

홈페이지 : ㉡ www.yeonsu.or.kr

문의 : 연수문화원 ㉠ 821-6229

‘근대기 음악 자료’를 구입합니다!

인천문화재단 인천음악플랫폼에서는 근대기(1860~1945년) 음악 및 음악인, 단체 관련 자료를 공개 구입합니다.
서적부터 악보, 악기, 음반, 사진, 기사, 공연 프로그램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 개인 소장자, 단체 및 법인

접수 기간 : 10월 22일(월)~26일(금)

문의 : 인천문화재단 개항장플랫폼팀 ㉠ 455-7178, ㉡ www.ifac.or.kr

공모! 당신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우리 시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 및 접수 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 시민 누구나(공무원 제외)
접수 기간 : 10월 1일(월)~31일(수)
제출 서류 : 제안서 1부(공고문 양식 기준)
시상 내역 : 5개 등급, 10명(팀), 1,500만원 이내, 시장 표창(10개)
홈페이지 : ㉠ www.incheon.go.kr
문의 : 시 청년정책팀 ㉠ 440-2887

제18회 인천청소년백일장

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예술창작을 통해 숨은 자질을 개발하고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8회 인천청소년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대상 : 인천관내 6세~19세(고 3) 청소년
부문 : 운문(시·작사·랩), 산문, 상상 그리기(6세~초 2)
접수 기간 : 9월 19일(수)~10월 17일(수) ※행사 당일 현장 접수 가능
행사 일정 : 10월 20일(토) 오후 1시~5시
행사 장소 : 인천청소년수련관
문의 : 시 청소년수련관 ㉠ 722-9153, ㉠ www.insiseol.or.kr

2018 도시학당 수강생 모집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바다, 사람과 도시를 잇다’를 주제로 2018 도시학당을 운영합니다.

대상 : 성인 80명
신청 기간 : 10월 8일(월) 오전 9시~마감 시
행사 기간 : 10월 18일(목)~11월 22일(목)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총 6회)
행사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3층 강당
수강료 : 무료
신청 : ㉠ compact.incheon.go.kr에서 신청(회원 가입 및 인증 필수)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 850-6031

학교 밖 청소년 안전요원 자격증 취득과정

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요원 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합니다. 교육 후에는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요원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대상 : 인천권역 학교 밖 청소년 만 13세~24세
(대한안전연합 자격 취득 기준)
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법, 재난안전 행동요령 등
일시 : 10월 17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 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연수실 1
문의 : 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721-2331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안내

부평밴드페스티벌이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으로 거듭납니다. 부평을 대중음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힘찬 행보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과거 부평 미군부대 일대의 클럽 역사를 재현하고, 신진 뮤지션 및 국내외 화려한 라인업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일시 : 10월 26일(금)~27일(토)
장소 :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및 달누리극장
관람료 : 무료
문의 : 부평아트센터 ㉠ 500-2042~4

‘초보 엄마를 위한 튼튼 밥상’ 프로그램 안내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에서는 임신부와 태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합니다.

대상 : 인천시내 가임기 여성과 임신부 및 예비 할머니 20명
일시 : 10월 10일(수)~1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낮 12시 30분
(매주 수요일 주 1회)
장소 : 미추홀 식생활 배움터(남구 주안로 117-16 행복주택 2F)

수강료 : 1만5,000원
신청 : 전화(㉠ 421-4234) 및 문자(㉠ 010-8268-6775) 선착순 접수
문의 : (사)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 421-4234



all ways INCHEON 2018 공정무역 페스티벌

우리 시가 대한민국 최초 공정무역도시 공인 1주년을 기념하는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그림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부터 드론 게임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일시 : 10월 13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야외극장)
행사 : 기념식, 축하 공연 등 ‘공식 공연’, 전국 공정무역 포스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대회’, 드론을 조정해서 알아보는 공정무역 과정 체험, 공정무역도시 인천 제3회 수망 로스팅 대회 등 ‘참여·체험’, 공정무역현장 서명 등 ‘오픈 스테이지’
문의 : 인천공정무역협의회 ㉠ 422-6116

‘인천 음악 총서’ 발간을 위한 콘텐츠 및 기획안 공모

인천문화재단 인천음악플랫폼에서는 인천 음악 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천의 음악 문화를 소개하는 ‘인천 음악 총서’ 발간을 위한 콘텐츠 및 기획안을 공모합니다.

자격 : 인천 음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개인 및 단체
접수 기간 : 9월 5일(수)~10월 24일(수)
접수 방법 :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홈페이지 : ㉠ www.ifac.or.kr
문의 : 인천문화재단 개항장플랫폼팀 ㉠ 455-7177



황해문화권
탐구 25년

남북한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한껏 오른 요즘입니다.
25년을 묵묵히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동향을 관찰하고 의견을 제시한 계간지가 있습니다.
황해문화 2018년 가을호가 출간됐습니다. 통권 100호라서 더욱 특별합니다.

황해문화는 지난 1993년 창간된 종합 인문교양 계간지다. 통권 100호인 이번 가을호에는 지난 6월 ‘통일과 평화 사이, 황해에서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 발표문과 좌담 기록이 실렸다. 문화평론가 김명인 편집주간은 권두언 ‘혼돈의 세계를 비추는 한 줄기 불빛의 마음으로’에서 “황해문화는 황해라는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동향,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주목하며 그때그때 이슈들에 대해 나름대로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편집위원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100호에 대해 “중앙성이 아닌 지역성, 변방성(또는 폐쇄성)이 아닌 개방성에 근거해 평화에 대한 트랜스로컬 방법론을 세워보고자 했다”고 전했다. 황해문화권의 가장 큰 이슈인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황해문화의 날카로운 의문과 메시지를 이번 가을호에서 확인해 보자.

문의 : 새얼문화재단 ㉠ 887-6375



황해문화 2018년 가을호
동아시아의 역사와 함께한 25년
신국판 480쪽, 9,000원,
새얼문화재단

아이는 행복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행복을 나눕니다.
인천 인구 300만 시대, 우리 시에서 성장해 나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나사르(여아)
2018년 3월 29일생·서구

부모의 바람
서구 유리 공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난민 가족입니다. 나사르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서울(여아)
2018년 8월 28일생·서구

부모의 바람
“기적같이 엄마 아빠에게로 와 행복이 되어준
사랑스러운 율아,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길 항상 기도한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환경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윤하윤(여아)
2017년 6월 5일생·남동구

부모의 바람
“사랑스러운 하윤아, 너로 인해 하루하루가
행복하단다. 내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준
천사 하윤아, 사랑해.”
아빠 육아휴직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합니다.



잠깐!

우리 시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5,000명, 고교 신입생 2만7,000명 등 총 5만2,000명에게 1인당 30만1,000원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이로써 인천시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 무상급식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5~8%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참여해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 440-2162

아기와 함께 찍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나 아이의 귀엽고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아기 이름, 탄생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인천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바라는 내용 및 인천시에 바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메일(goodvoice@korea.kr)로 보내주시면 '굿모닝인천'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는 출생 후부터 24개월까지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 440-8304

브랜드, 익숙함이 되다 샘표

글 이종선 시 브랜드전략팀장

샘표간장
標는 부엌의 마크

‘냉장고를 부탁해’, ‘수미네 반찬’ 등 요리 관련 TV 프로그램(쿡방)이 인기를 끌고 있고, 요리를 잘하는 섹시한 남자의 줄임말인 ‘요섹남’도 여전히 인터넷에 자주 등장한다. 쿡방이 유행하면서 식재료나 조미료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그런데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있다. 바로 맛을 살려주는 간장, 고추장 같은 장류다. 장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대부분 ‘샘표 간장’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1946년부터 국내 최초로 간장 판매를 시작해 72년째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샘표는 1949년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등록된 상표 중 가장 오래되었다. 1954년 5월에 등록되었다. 상표의 평균 존속 기간이 11.7년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감안하면, 환갑을 넘긴 샘표가 여전히 시장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샘표의 1위 유지는 ‘최초’의 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비자 관리 카드 제도 운영, 건물 옥상 네온 사인 광고,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큰 인기를 끌었던 TV 광고 노래, 유리가 아닌 페트병으로 바뀐 간장 용기, 공장 견학 등 최초의 시도들을 끊임없이 시행해 왔고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다.



샘표 홈페이지 제공

그런데 ‘샘표’ 이름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곰표, 부채표, 말표, 왕자표처럼 과거에는 ‘ㅇㅇ표’라는 이름이 많았다. 여기에 쓰인 ‘표’는 ‘브랜드’를 지칭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현재 우리는 삼성 브랜드, LG 브랜드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그저 삼성, LG 이렇게 말한다. ‘표’가 브랜드와 같은 말로 반복 표현이기 때문에 빼야 한다는 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샘, 곰, 왕자, 말, 부채가 되어야 한다. 어떤가? 상당히 낯설지 않은가? 샘 간장, 곰 밀가루.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어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제품이 맞나 의심이 생긴다. 어법에는 맞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샘표 간장, 곰표 밀가루가 되어야 편안해지고 믿음이 가게 된다.

브랜드의 힘은 익숙함에서 나온다.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100년 이상 된 해외 브랜드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100년, 200년 된 것들이 나와야 한다. 아마도 샘표가 먼저 그 선을 넘으리라 예상해 본다.



인천을 사랑한 바다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바다는 늘 인천을 향하고 있었다. 때론 블루나 카키의 무늬로, 때론 검붉은 빛깔로 밀려들었다. 비류왕이 미추홀(인천) 왕국을 건설한 이래 인천은 풍요의 바다를 개척해 나갔다. 사람들은 ‘능허대’(凌虛臺)에서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향했고, 이국인들은 인천~산둥(山東)을 잇는 등주항로를 따라 능허대로 들어왔다. ‘산둥성의 개가 짖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능허대는 삼국시대 번성한 국제무역항이었다. 능허대뿐만이 아니다. 자연도(영종도)엔 ‘경원정’이란 객관이 송나라 사신과 상인들을 접대하기도 했다. 그렇게, 바다를 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교역이 인천에서 닳을 올렸다. 인천의 바다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때는 18세기 이후다. 중국과 일본을 정복한 서구 열강들이 조선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 등 열강들은 이양선을 보내 문호 개방을 강요하며 시위를 일삼았다. 설상가상으로 서구 열강의 으름장에 ‘개항을 당한’ 일본이 그들의 흉내를 내며 같은 방식으로 조선을 압박해 들어왔다. 강화도 염하에 군함을 먼저 띄운 건 프랑스와 미국이었다.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는 그러나 조선의 문을 열지 못했다. 조선은 함포 몇 발에 개항을 한 중국, 일본과는 달리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관군은 물론이고 의병, 승병까지 합세한 조선인들은 최후의 순간에도 눈을 부릅뜬 채 적의 얼굴에 각 하고 피를 내뿔으며 죽어갔다. 서서히 치쳐가던 조선에서 호기를 잡은 건 일본이었다. 운요호(雲揚號)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1876)을 체결한다. 침탈의 기반을 마련한 일본은 조선을 점점 옥죄며 결국 굳게 닫혔던 쇄국의 자물쇠를 풀어버린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던 제물포는 그렇게 일본과 서구 열강의 희생양으로 세계를 만난다. ‘조선은 내 것’이라며 외국 군대들 간 벌인 전장도 인천 앞바다였다. 그들에겐 기회였지만 우리에게

수난의 바다이던 시기였다. 1883년 개항은 인천에 ‘대한민국 최초’란 수식어를 단 유·무형의 역사·문화 유산을 남기기도 했다. 근대식 군함 양무호, 묘도 해수욕장, 인천수족관, 주안염전에서부터 근대적 행정기관인 인천해관(1883), 해군사관학교인 조선수사해방학당(1893), 바다에 등불을 밝힌 팔미도등대(1903)에 이르기까지 인천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가 즐비하다. 오랜 세월, 바다를 둘러싼 격랑의 시대를 의연하게 헤쳐온 인천은 지금, 새로운 도전의 항해를 시작했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시대를 열어젖힌 인천항은 이제 400만TEU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민선 7기 인천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남북공동 어로수역을 조성하는 ‘서해평화협력시대’의 개막을 준비 중이다. 머잖아 인천의 바다에선 포탄과 불법 중국 어선 대신 우리 남북 어민들이 어우러져 꽃게를 잡는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당위성은 예나 지금이나, 위기였거나 기회였거나 인천이 ‘한반도의 이후’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개항기의 낯설고 딱딱한 서양문물을 먹기 좋게 씹어 전국으로 공급한 도시도 인천이었다. 한 예로 종교가 그랬고, 음악도 마찬가지다. 바다를 중심으로 흘러온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축이었고, 남북 통일과 해양 강국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는 인천. 인구 300만의 도시임에도 국립문화시설이라곤 2015년 유치한 ‘세계문자박물관’이 전부라는 현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이 하루속히 인천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로 회자된다. 이 가을, 황해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린다. 바다가 출렁일 때마다 무수한 햇살의 조각들이 물비늘로 반짝인다. 저 무수한 태양의 편린들은 혹시 바다를 부둥켜안고 살다 간 인천 사람들의 영혼이 아닐까.

강화도 마니산 소사나무

사진 오인영 마추홀구사진인연합 회장



단군이 쌓은 제단인 참성단과 벗하는 수목은 무언가 특별해야 했다. 영산(靈山) 마니산과 어울릴 만한 기세와 품위도 필요했다. 그래서 산 바위를 딛고 선 나무줄기는 웅골찡고,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들은 단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녔다. 개천(開天), 그 옛날 하늘이 열리고 땅에게 전해진 최초의 생명은, 사람이 아닌 씨앗에서 발아한 작은 나무였을 것이다. 나무는 자라나 산림과 자연을 이루고, 그 위에서 인간 단군은 삶의 터전을 열었을 터. 작지만 단단한 몸통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지상의 삶을 뿌리내리는 근성. 우리 민족은 단군의 제단 곁을 지키는 소사나무를 닮았다.

나무 높이 : 4.8m / 나이 : 150년 추정
특징 :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 있는 나무로, 굵은 줄기가 그루에서부터 방사형으로 여러 개 뻗어 있다. 강화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수목이며, 천연기념물 제502호로 지정되었다.